

기자 경력 및 기자 전문성에 따른 취재활동 분석 - 메르스 취재를 중심으로 -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A Study on the Specialism and Professionalism of Journalists: A MERS-CoV Case

Hyungjoon Jeon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Danko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분석했다. 과학·의료·보건 등의 영역과 언론의 융합에 해당하는 전문기자와 전문기자가 아닌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기자들의 경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다. 기자 21명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인터뷰했고, 이들을 전문기자 여부와 기자 경력의 고저에 따라 4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해, 소그룹 별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부 전문기자들은 정부 발표 이외의 취재원으로부터 국내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처음 접한 경우가 발견됨으로써, 전문기자로서 오랜 기간 구축한 취재원 네트워크가 유효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기자들은 일반기자들에 비해 해외의 취재원을 접촉한다든가 메르스 관련 논문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는 등 더 깊이 있는 취재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메르스 사태에서 기자들이 정부의 소통에 문제의식을 느낀 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문기자들은 정부의 접촉자 판단 기준 밖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꼽았고, 일반기자들은 정부가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주제어 : 과학기자, 의학전문기자, 기자 전문성, 메르스, 취재활동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porting activities of journalists who covered MERS-CoV in 2015. Twenty-one reporters were interviewed to investigate their differences in reporting. They were categorized into four small groups based on their specialism and professionalism. Some specialist reporters answered that they acknowledged the first MERS patient through an external source. A few special reporters contacted foreign experts for further information and one of them answered that she read academic articles on MERS to verify governmental announcements. Specialist reporter groups and the other groups showed difference when they were asked the situation they felt something was going wrong in governmental communication: Many specialist reporters pointed out the outbreak of a patient from out of the monitoring people, but many general reporters emphasized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not to reveal the name of hospitals that the outbreaks happened.

Key Words : Specialist Journalist, Medical Reporter, Professionalism, MERS-CoV, Sources

Received 20 May 2016, Revised 9 August 2016
Accepted 20 October 2016, Published 28 Octo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Hyungjoon Jeon(Dankook University)
Email: samhjeon@gmail.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전문기자 제도는 1990년대에 시작됐다. 중앙일보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들여오는 방식을 택했는데, 1994년 박사급 전문가 17명을 채용했다. 약 10년 후인 2001년에는 새로운 방식이 시도되는데, 언론사 내에서 기자들을 선발해 특정 영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이 이렇게 전문기자를 늘려나갔다[1].

전문기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문기자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소수 있었으나, 취재 현장에서 전문기자들과 일반기자들 사이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한 연구는 극히 소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분석했다. 메르스 사태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과학·보건·의학 등의 분야와 언론 간의 융합인 전문기자들과 일반기자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첫째,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 전문기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사례이다. 1990년대 전문기자 제도가 시작될 때에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 분화가 중요한 문제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기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2,3]. 하지만, 언론사의 경영 압박이 심해지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살아남기가 어려웠고, 가장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더라도 많은 독자들의 관심 분야인 보건·의료 분야가 전문기자의 주 무대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3].

두 번째 측면은 메르스 취재에 있어서 전문기자들 뿐 아니라 일반기자들도 상당수 참여했고, 수 십 년의 경력을 가진 기자들 뿐 아니라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기자들도 다수 참여했다는 것이다. 메르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기사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여러 가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자들이 팀을 이루어 취재한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측면은 취재원의 선택과 발굴에 관한 것이다. 메르스라는 질병 자체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한 것이어서, 이 질병과 관련하여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취재원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이 질병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서도 기자들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염내과라는 분야에 해당하는 취재원들에 있어서는 기자들 개개인이 구축한 취재원의 차이가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취재원들을 선택하거나 새로이 발굴하고 접촉하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를 취재한 전문기자들과 일반기자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취재 활동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메르스 취재에 있어서 기자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지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서 브랜드와 콘텐츠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미디어 환경에서 전문기자 제도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고, 기자라는 직업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 선행연구

2.1 기자 전문성: 취재의 효율성과 뉴스의 질

기자의 전문성에 대한 기존 논의는 취재의 효율성과 뉴스의 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4]. 다시 말해, 전문성이 높은 기자가 일반적인 기자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취재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더 고품질의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생산성의 개념을 저널리즘에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5].

김사승(2004)은 국내 9개 중앙일간지 전문기자, 일반기자, 간부 등 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문기자가 더 효율적으로 취재를 할 수 있음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에서 기자가 된 경우(외부 충원 전문기자) 출입처 바깥의 전문가 취재원을 확보하기에 용의하다는 점이 파악됐고, 기자로서 한 분야를 장기간 취재해 전문기자가 된 경우(내부 충원 전문기자)에는 출입처 내부의 취재원을 독점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취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물론 취재원과의 긴밀한 관계에는 부작용도 따르는데, 취재원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특히 외부 충원 전문기자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6].

뉴스의 질과 관련해서는 정보로서의 유용성(utility)과 내적 완결성(integrity) 등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다[7]. 전문기자가 쓴 뉴스가 일반 기자가 쓴 뉴스에 비해

유용성과 내적 완결성 등의 측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해외 연구로는 Wilson et. al.(2010)의 연구가 주목할 만했다. Wilson et. al.(2010)은 전문가들이 의학·보건 기사를 평가하는 미디어 닥터 사이트[8]에 게재된 기사들을 분석했다. 미디어 닥터 사이트는 호주에서 언론에 게재된 의학·보건 기사들에 대해 유용성과 완결성 등과 관련된 10가지 기준에 의거해 평점을 매기는 사이트이다. 분석 결과 전문가들이 쓴 뉴스가 일반기자들이 쓴 뉴스에 비해 더 좋은 평점을 받았음을 밝혀냈다[9].

2.2 전문기자로서의 기자 특성화

기자의 전문성이 취재의 효율성과 뉴스의 질 등에서 드러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기준 논의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문기자로서의 기자 특성화(specialism or expertise)이고, 두 번째는 언론인으로서의 직업 전문성(professionalism)이다[10].

우선 전문기자로서의 기자 특성화는 취재와 기사 작성 등 기자의 전문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심화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11]. 때때로 해당 분야에서 석사나 박사과 같은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있다. 조작적으로는 “뉴스조직에 소속된 전업기자로서, 특정한 분야의 항구적인 직무를 담당하며 근무 시간의 반 이상을 이 분야에 투입하는 기자”로 정의하기도 한다[12]. 다시 말해서 보건, 과학, 경제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에 버금가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당 분야의 정책이나 사건 등에 대해 심층 진단과 해설을 할 수 있고, 앞으로의 전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언론계에서 전문기자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부터 있었지만, 학계의 연구가 활발해 진 것은 1980년대이고, 언론사에서 전문기자제를 도입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4년 중앙일보가 최초로 알려져 있다[13]. 그러나,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실질적인 전문기자들은 있었다. 김창룡(1993)은 현직 기자들을 인터뷰한 연구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 약 30년을 취재한 서울신문의 기자, 의학분야에서 10년을 취재한 국민일보의 기자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14].

한편, 전문기자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시각

은 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이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동찬(2010)은 “실제로 같은 기사나 리포트라도 ‘의학전문’타이틀이 제시된 경우엔 기사클릭 횟수나 시청률이 올라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으며[15], 김동섭(2014) 역시 기사 작성 주체가 전문기자인 경우와 일반기자인 경우 사이에는 독자의 태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16].

김창룡(1993)은 또한 영국의 권위지에는 대중지에 비해 몇 배나 되는 전문기자들이 포진해 있고, 이들은 고품질의 기사를 생산한다면서, 이들 전문기자로 인해 해당 언론이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의 5대 권위지에는 매체 당 평균 52명의 전문기자가 있지만, 6대 대중지에는 매체 당 평균 10명의 전문기자만 일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의 권위지와 대중지에 종사하는 평가자의 수는 매체 당 각각 225명과 204명으로 차이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권위지가 대중지에 비해 전문기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17].

한편 전문기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실효성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이다. 전문기자들이 취재원들과 오랜 기간 관계를 맺고, 동질성도 큰 나머지 취재원들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 되기 쉬우며, 그에 따라 객관성을 잃거나 독자가 최우선이란 사명을 망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18, 19].

또한 매너리즘도 전문기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전문기자를 하려면 한 출입처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기사를 자주 쓰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기사가 항상 지녀야 할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20, 21].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김동규·김경호(2005)의 연구에서 한 기자는 “말이 전문기자지 일반기자와 뭐가 다른가? 스트레이트 기사 쓰면서 출입처 나가야하고 모양내기 기사나 쓰는 게 전문기자 아닌가. 몇몇 TV에 나가는 스타 기자 역시 과연 그 조직에서 전문기자로 인정받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F차장)”고 말하기도 했다[22].

2.3 언론인으로서의 직업 전문성

기자의 전문성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인 언론인으로서의 직업 전문성(professionalism)은 기자로서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직 자체가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

이다.

정태철(2005)은 기자라는 직업이 전문직에 해당하는가를 논하면서, 기자는 구조적으로는 전문직이라고 부르기 어렵지만, 태도의 측면에서는 전문직에 가깝다는 해석을 한다. 이는 사회학자 홀(Hall, 1968)의 구분을 빌려온 것인데, 그에 따르면 구조적 요인은 전문직을 길러내는 특화된 교육 과정이 존재하는가, 일정한 실력을 요구하는 면허제도가 있는가, 해당 직종에 들기 위한 자격 요건이나 자율성을 공동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회 등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에 신문방송학과나 저널리즘스쿨이라는 교육 과정이 존재하지만, 이 전공을 나오지 않더라도 기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각 언론사별로 입사 시험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국가적인 면허제도와는 다른 것이므로, 기자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이다[23, 24, 25].

한편, 전문직은 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직업정신 또는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측면에서 볼 때, 언론이 사회적 소통의 도구라는 사회봉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권력의 부패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소명 의식도 가지고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직업정신의 차원에서 볼 때, 기자는 태도적인 측면에서 전문직에 가깝다는 것이다[26].

김영욱(1999)은 기자의 직업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크게 다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자의 실무 능력이다. 취재와 기사작성, 편집 등에 있어서 일반인에 비해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언론활동에 필요한 지식이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독자와 시청자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언론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뉴스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식이 이에 해당한다[27].

김창룡(1993)도 비슷한 맥락에서 기자의 직업 전문성을 언급했는데, 그는 취재원을 확보하고, 취재에 필요한 기본 상식을 갖추는데 적어도 3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정동우(2010)도 뉴스가치에 대한 감각과 취재와 전달 능력에 기자의 직업 전문성이 있다고 보면서, 이런 요소들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면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어도 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았다[28, 29].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취재하는데 있어서 전문기자들과 일반기자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메르스 사태를 취재했던 기자 21명을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2015년 12월 10일 시작하여 2016년 1월 25일까지 진행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대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공한 후, 응답자들이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것을 회수했다.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은 종합 일간지, 지상파 방송, 온라인 매체, 전문지, 지방지 등에 속해 있었고, 기자 경력은 최단 4년부터 최장 35년에 걸쳐 분포했다. 이들이 과학·의학·건강 등의 분야를 담당한 기간은 짧게는 1년이었고, 가장 긴 경우는 35년이였다(<Table 1> 참조).

<Table 1> Interviewees' additional information

Reporter	Total amount of time working as a reporter	Amount of time working as a special reporter
A-1	35 yr	35 yr
B-1	32 yr 2 mo	30 yr
B-2	18 yr	11 yr
C-1	20 yr	15 yr
C-2	5 yr 6 mo	5 yr 6 mo
D-1	25 yr 1 mo	15 yr
D-2	9 yr	1 yr
E-1	13 yr 6 mo	13 yr 6 mo
F-1	12 yr 7 mo	12 yr 7 mo
G-1	16 yr	11 yr
H-1	20 yr 11 mo	8 yr
I-1	18 yr	8 yr
J-1	12 yr	7 yr
K-1	12 yr	6 yr
L-1	6 yr 3 mo	6 yr
M-1	16 yr 5 mo	5 yr
N-1	12 yr	2 yr
O-1	4 yr	1 yr
O-2	10 yr 4 mo	1 yr
P-1	17 yr	17 yr
Q-1	11 yr	11 yr

본 연구는 전문기자들과 일반기자들의 취재 활동 차이와 상대적으로 고경력 기자와 저경력 기자 간의 취재활동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므로, 4개의 그룹으로 기자들을 분류하였다. 전문기자의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를 전문기자로 인식하고 있는지와 메르스 취재 당시 과학·의학·건강 등을 담당했고, 과학·의학·건강 등을 담당할 인수가 전체 기자 경력의 50% 이상인지를 동시에 보았다.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만을 전문기자로 분류하였다.

고경력과 저경력에 대한 조작적 기준을 세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 기준을 택하는 대신 조사 대상 기자들의 상대적인 경력을 고려했다. 전체 기자들의 경력의 평균이 15년 6개월이었으므로, 이 이상인 경우를 고경력, 이 미만인 경우를 저경력으로 분류했다.

이상을 기준으로 21명의 기자들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면 <Table 2>와 같았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reporters

Categories	Long working experience	Short working experience
Specialist	<Group1> A-1 B-1 B-2 C-1 D-1 G-1 P-1	<Group2> C-2 E-1 F-1 J-1 K-1 L-1 Q-1
Non-specialist	<Group3> H-1 I-1 M-1	<Group4> D-2 N-1 O-1 O-2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1. 전문기자와 일반기자 간에는 메르스 취재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가?

연구문제2. 고경력 기자와 저경력 기자는 메르스 취재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4. 연구결과

4.1 질병관리본부의 최초 발표시 인지 채널과 취재원

김창룡(1993)은 전문기자들이 상당수 있는 영국의 권위자에 대한 연구에서 전문기자의 장점으로 일반기자에 비해 더 전문적인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30]. 이번 메르스 취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문기자들이 최초 보도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취재원의 차이가 존재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Table 3>와 같았다.

<Table 3> First channel of perceiving the MERS case

Categories	Long working experience	Short working experience
Specialist	External 2 Internal 4 Other 1	Internal 7
Non-specialist	Internal 3	Internal 4

* Internal: Official Briefing or PR release of Government

* External: Personal sources of the reporter

* Other: News stories from other media

1그룹에 속하는 경우 출입처가 아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인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문분야 담당 연수가 30년이 넘는 2명(A-1, B-1)은 감염내과 교수로부터 최초의 메르스 환자 발생 사실을 접했다. 이는 이들이 30년 동안 이 분야를 취재하면서 취재원들과 형성한 네트워크가 작동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에, 2, 3, 4그룹의 기자들은 모두가 출입처를 통해 환자 발생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 대부분이 보도자료를 통해 인지했다고 응답했고, Q-1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워크숍에서 메르스 감염 사례 확인. 보건복지부 기자단 간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 후 엠바고에 맞춰 기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초로 메르스 환자 발생을 인지한 이후 이들의 취재 활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전염병이었다. 따라서 감염내과 쪽 등이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메르스 자체를 연구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취재원들을 접촉했는지에 있어서 전문기자와 일반기자 간에 차이가 크지, 아니면 기자 경력이 긴 경우와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 간의 차이가 큰지는 전문기자로써의 기자 특성과와 언론인으로서의 직업 전문성 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흥미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Table 4> 참조)

분석 결과 대부분의 기자들이 취재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감염내과 교수와 질병관리본부의 관계자들이었다. 그러나, 기본 취재원이었던 이들을 제외하면 전문기자와 일반 기자들 간의 취재원 접촉에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Table 4> Sources after the first perception

Categories	Long working experience	Short working experience
Specialist	Professors 4 Doctors 4 Association 1 Scientists 1 Officials 2 Ex-official 1 Foreign 1	Professors 1 Doctors 1 Officials 3
Non-specialist	Professors 1 Doctors 1 Association 1 Officials 2	Professors 4 Officials 1 Foreign info 1

1그룹의 경우 병원장들, 병원협회 메르스대책 관련 위원들, 보건학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등 정부의 입장에서 좀 더 자유로운 국내 취재원이 있고, WHO관계자와 외국 전문가도 취재 대상이 되었다. C-1기자는 메르스 관련 논문을 직접 찾아서 읽어봤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2, 3, 4그룹의 경우 취재원의 다양성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특징은 3그룹에 속한 I-1기자가 보건의료단체, 해당병원 의료진에 대해 바로 취재한 것이다. 1그룹이나 2그룹과 비교하면, 과학적으로 깊이 있는 정보와 확인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는 넓은 접근으로 해석된다. 또한 D-2기자는 WHO,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의 자료를 참고해서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직접 해외의 취재원을 접촉한 것은 아니었다.

4.2 정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메르스 사태는 초기의 정부 예상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그런 큰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을 초기부터 알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B-1기자는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메르스의 전염력이) 약하다고” 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사태가 그렇게 오래, 크게 번지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떤 계기로 인지했는지 중요하다. (<Table 5> 참조)

<Table 5> First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communication problems

Categories	Long working experience	Short working experience
Specialist	1 st F/Q 1 Int F/Q 2 Inc. E/G 1 N/H 2 First Death 1	1 st F/Q 1 1 st E/G 2 Inc. E/G 2 Insensitivity 2
Non-specialist	N/H 2 Insensitivity 1	1 st F/Q 1 Inc. E/G 1 N/H 2

* 1st F/Q: the First Failure of Quarantine
Int F/Q: International Failure of Quarantine
1st E/G: the First Exception of Guideline
Inc. E/G: Increase of Exceptions of Guideline
N/H: Nondisclosure of the Hospital names

메르스 사태에서 기자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시점을 그룹별로 분석해 본 결과, 그룹 간에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는 병원명 공개를 하지 않는 것(N/H)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낀 경우가 6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격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최초로 인식한 시점(1st F/Q)을 꼽은 경우도 3명, 접촉자 판단 기준 바깥의 환자가 증가한 시점을 꼽은 경우(Inc. E/G)도 4명, 정부의 무감각을 느낀 경우(Insensitivity)도 3명이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기자들이 뭔가 문제라고 느낀 최초의 시점은 5월 26일이었다. 이날은 격리 대상이 아니었던 3번 환자의 딸이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1st F/Q).

5월 27일 한국인 메르스 의심환자가 중국에 입국했다는 것이 알려졌고(Int F/Q), 5월 28일 보건당국이 세웠던 접촉자 판단 기준(2m, 1시간) 밖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the First Exception”). 5월 28일은 또한 보건 당국이 병원명 비공개 방침(N/H)을 분명히 한 날이다.

보건당국이 세웠던 접촉자 판단 기준(2m, 1시간) 밖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보건당국은 이 상황을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존의 발표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많은 기자들은 그러한 보건당국의 설명을 끈이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그룹에 속하는 A-1기자와 2그룹에 속하는 E-1, F-1, J-1기자, 그리고 4그룹의 O-2기자가 이때를 최초 문제의식을 가진 시점으로 응답했다. E-1기자는 그 당시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번째 환자와 같이 입원했던 환자들 가운데 격리 대상 이외의 사람 중에 확진자가 생기는 것을 보고, 보건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때 보건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때 보건당국의 대변인실에서 기존의 발표가 옳았다는 것을 고집했을 때부터 방향이 잘못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메르스의 감염 원칙이 깨졌을 때에는 더 이상 기존의 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보건당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메르스가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현재 알고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어야 합니다.

한편, 병원명 비공개 방침이 그런 인식을 가지게 했다는 기자들이 가장 많았다. C-1, D-1, I-1, M-1, O-1, D-2 기자가 초기의 병원명 비공개 방침을 문제로 보았다. O-1기자는 당시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고 병원에서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소동이 일어나자 카카오톡을 통해 여러 곳에서 병원 명단이 떠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브리핑 때도 수 차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명단을 공개해야한다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해외사례만 언급하며 이를 문제삼는 기자를 바보 취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전염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병원명을 공개하라고 하느냐, 그건 이번 방역과 관련이 적은 것인데 집요하게 자꾸 요구하지 말아라”하는 듯한 느낌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상을 보면,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시점은 거의 같지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전문기자와 일반기자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전문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격리 대상이 아닌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를 보건 당국이 예외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에 비해 여러 일반기자들은 반 이상이 정부가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대해 전문기자와 일반기자 간에 귀인(attribution) 태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정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자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Table 6> 참조).

선행연구에서 전문기자들이 취재원들과 동질성이 큰 나머지 취재원들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 되기 쉽다는 측면을 보았는데, 정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인식에 있어서 미묘하게나마 그런 측면이 관찰된다. 전문기자, 일반

기자를 막론하고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1그룹이 비교적 우호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Table 6> Perceived reasons of the government's communication problems

Categories	Long working experience	Short working experience
Specialist	N/G 1 Laxity 4 SFM 1 IMEC 1	Laxity 2 D/A 4 E/S 1
Non-specialist	D/A 3	Laxity 2 E/S 1 L/I 1

* N/G: Not the Government's Fault
SFM: Stick to Fixed Manual
IMEC: Ignorance of the media environmental change
D/A: Dogmatic Approach
E/S: Embarrassing situation
L/I: Lack of Information

1그룹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은 정부 책임자들이 완전히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별일 없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Laxity)을 가지고 있었던 게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 외에 지나치게 매뉴얼에 집착하거나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무지했던 것이 이유로 꼽혔고, 사실상 문화적인 문제가 중요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2그룹과 3그룹은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나 투명하지 못했던 점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C-2기자는 “신뢰감을 주지 않고, (병원명 공개, 격리자 기준 등) 투명하지 않았던 점”을 지목했고, L-1기자는 “메르스라는 감염병에 대한 불안으로 사회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대통령 지지율 등 과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정부 커뮤니케이션 문제의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4그룹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 당황스러운 상황, 메르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4.3 전문가/전문기관 권위의 영향

전문기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일반기자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당연히 교차 확인을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교차 확인하면 충분한 지에 대해서는 기자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뉴스가치 등에 대해 전문기자들이 보다 주관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선행 연구를 감안할 때[31], 메르스 취재에 있어서도 권위에 대한 판단을 전문기자와 일반 기자가 다르게 했는지를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메르스와 관련한 브리핑을 할 때, 전문가들을 참석시키고 미국질병통제센터의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것 등이 어느 정도 취재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조사했다. 전문기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위에 대해 비판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권위에 대해 더욱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Table 7> Influence of experts and authority

Categories	Long working experience	Short working experience
Specialist	V/I 5	V/I 3
	S/I 1	S/I 1
	N/I 1	N/I 3
Non-specialist	V/I	V/I 2
	S/I 1	S/I 1
	N/I 2	N/I 1

* V/I: Very Influential
S/I: Somewhat influential
N/I: Not so influential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권위가 취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그룹별 차이가 발견됐다. 1그룹은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권위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1그룹의 B-1기자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했다.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질병 관련 정보는 전문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그룹에 속하는 D-1기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련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 질병통제국, 세계보건기구, 미국 감염병 거버넌스 전문가, 감염내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등의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2그룹에 속하는 C-1기자는 신뢰하되 검증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전문가의 지식과 CDC 가이드라인, WHO 자료 등은 신뢰했다. 정부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원본을 보고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정부가 원본의 내용 전체를 번역하거나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도 있었다.”

한편, 2그룹의 기자들 중에는 권위에 영향을 받은 비

율과 거의 받지 않은 비율이 비슷했다. 2그룹의 E-1기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메르스 관련 위원회에 모두 소속돼 메르스 대책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메르스 감염 양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없어서 전문가들에게 취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그룹에 속하는 J-1기자는 전문성의 요소를 감염 의학이라기보다는 방역이라고 보고, 그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비판적 관점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방역 최고 전문가는 결국 방역 당국일 수밖에 없음. 일반적인 의료와 다르기 때문. 주로 국내 방역 당국의 정보를 미국 CDC나 WHO 가이드라인과 비교 분석해 보는 방법으로 취재함. 하지만 국내 방역 당국은 전문성이나 독립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도가 국내 방역 당국의 권위에 휘둘리는 점은 없다고 봄.”

한편 이런 영향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 L-1기자는 “메르스란 질환에 대한 국내경험이 없는 상태였고 자연히 전문가의 의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이라고 응답했고, C-2기자는 “감염내과 전문의, 미국 CDC 등의 정보는 감염병 초기 절대적 90% 이상. 환자수가 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의심과 검증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응답했다.

3그룹의 M-1기자는 “별 영향 없었다. 복지부의 초기 대응 부실과 편협한 기준(1시간 2미터 이내 전파력 등)에 대해 상식적인 의구심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4그룹의 경우 영향력에 대해 여러 가지 응답이 있었다. O-1기자는 “영향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부터가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가 ‘감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취재의 폭을 좁히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대 의대 교수 역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고 곳곳에서 사망자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라고 지적했다, D-2기자는 “전문가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늘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교차 검증을 하려고 노력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간혹 그러지 못해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사를 내기도 했지만 그런 일을 최소화하려고 애썼다”고 응답했다. 4그룹에 속하는 N-1기자는 전문가에 의존한 초기와, 메르스 확산 이후 전문가에 대해 실망한 이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메르스 보도 초반에는 전문가들과 미국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메르스가 확산되고 나서는 더 이상 전문가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고, 이후부터는 전문가들의 멘트 따는 것도 자제하기 시작함. 메르스란 질병에 있어 우리나라에 ‘전문가’는 없었다고 생각함.”

5. 토론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의 취재에 있어서 전문기자과 일반기자 간에 차이가 있었는지와, 고경력 기자와 저경력 기자 간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문기자 제도에 대해 언론계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는 상황이므로, 전문기자과 일반기자가 취재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이제 언론계도 융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32].

우선 취재원 측면에서 전문기자들이 일반기자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본 결과, 1그룹에 속하는 전문기자들은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정보를 접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전문기자들이 일반기자들에 비해 출입처 외부의 정보원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최초 인지 이후의 취재 활동에 있어서는 고경력의 전문기자 1그룹이 3, 4그룹 뿐 아니라 2그룹과도 차이점을 보였다. 2, 3, 4그룹의 기자들은 정부 관계자나 국내 전문가들, 외국 보건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는데 그친 반면에, 고경력의 전문기자들은 정부의 메르스대책 관련 위원들과 같이 좀 더 핵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취재원을 확보했거나, 세계보건기구(WHO)나 외국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등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 문제점을 느낀 계기에 있어서도 그룹 간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문기자들은 격리 대상이 아닌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을 주목했고, 일반 기자들은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주로 지적했다. 이는 전문기자과 일반기자 간에 뉴스 가치를 직감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문기자들의 경우 정부의 전염병 통제 정도에 보다 관

심을 가진 반면, 일반기자들은 정부의 정보 통제, 즉 국민의 알권리 침해 또는 우려 해소에 더 관심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전문기자들과 일반기자들 간에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은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였다. 전문기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의도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보다는 안이함이나 시스템의 오작동, 청와대 결재 과정 시스템의 문제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았다[33]. 그러나 일반기자들은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기자들은 병원의 이해를 우선시했다거나 청와대 눈치보기, 책임 회피 등을 그 예로 꼽았다. 물론 정치적인 판단이 문제였다는 것은 전문기자들과 일반기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 의식이었다.

기자들의 취재 활동에 있어서 전문기자과 일반기자의 차이점은 학계에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과 일정 부분 일치했다. 예를 들어, 전문기자들이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데 따른 부작용으로 상대적으로 덜 비판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1그룹은 정부 관계자들의 잘못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 그들이 사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인식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감 상실이나 당혹감 등을 느낀 것이 원인이라고 본 점을 통해 정부 취재원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측면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반기자들은 보건 당국이 국민의 안전보다 병원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거나, 책임 회피를 했다는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음으로써 취재원들과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1그룹은 정부 관계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식하는 걸 넘어서, 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됐는지까지 공감의 태도로 봄으로써 날카롭게 비판하지는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기자의 전문성에 대한 그동안의 이론적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그 동안의 전문성 연구가 전문기자로서의 기자 특성화와 언론인으로서의 직업 전문성의 측면에서 각각 구분되어 진행되어 온 사례가 많은데,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메르스 사태를 취재한 것에 국한되었기에

보건·의료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문기자와 일반기자의 취재 활동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실제 그들이 작성한 기사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지만, 이 경우 이들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된 전문기자들과 일반기자들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은 분석도 학술적인 의의가 클 것이다.

REFERENCES

- [1] S. H. Kim, "Present and future of Korea specialist journalist system." *Kwanhun Journal*, Vol. 117, pp.56-63, 2010.
- [2] S. H. Kim, "Present and future of Korea specialist journalist system." *Kwanhun Journal*, Vol. 117, pp.56-63, 2010.
- [3] S. H. Kim, "Present and future of Korea specialist journalist system." *Kwanhun Journal*, Vol. 117, pp.56-63, 2010.
- [4] S. Kim, "Relationship between specialism and news quality in newsgathering activities: Concerning recruiting rout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8, No. 2, pp.56-78, 2004.
- [5] Wilson, A., Robertson, J., McElduff, P., Jones, A., & Henry, D. "Does it matter who writes medical news stories?". *PLoS Med*, Vol. 7, NO. 9, e1000323. 2010.
- [6] S. Kim, "Relationship between specialism and news quality in newsgathering activities: Concerning recruiting rout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8, No. 2, pp.56-78, 2004.
- [7] S. Kim, "Relationship between specialism and news quality in newsgathering activities: Concerning recruiting rout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8, No. 2, pp.56-78, 2004.
- [8] <http://www.mediadoctor.org.au>
- [9] Wilson, A., Robertson, J., McElduff, P., Jones, A., & Henry, D. "Does it matter who writes medical news stories?". *PLoS Med*, Vol. 7, No. 9, e1000323, 2010.
- [10] T. C. Jung, "Needs of professionalism of Journalist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 5, No. 2, pp.417-454, 2005.
- [11] D. M. Kim, "Status and evaluation of specialist journalists system." *Press Arbitration*, Vol. Summer, pp.32-44, 2001.
- [12] J. Tunstall, *Journalists at Work*, London: Constable: p.76. recited from S. Kim(2002: p.61)
- [13] D. M. Kim, "Status and evaluation of specialist journalists system." *Press Arbitration*, Vol. Summer, pp.32-44, 2001.
- [14] C. R. Kim, "Comparison of specialist journalist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K." *Kwanhun Journal*, Vol. 55, pp.111-140, 1993.
- [15] D. C. Cho, "Specialist journalists with certificate." *Kwanhun Journal*, Vol. 117, pp.64-69, 2010.
- [16] D. S. Kim, "Specialist are the future of journalism." *Kwanhun Journal*, Vol. 130, pp.19-25, 2014.
- [17] C. R. Kim, "Comparison of specialist journalist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K." *Kwanhun Journal*, Vol. 55, pp.111-140, 1993.
- [18] C. R. Kim, "Comparison of specialist journalist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K." *Kwanhun Journal*, Vol. 55, pp.111-140, 1993.
- [19] S. Kim, "Relationship between specialism and news quality in newsgathering activities: Concerning recruiting rout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8, No. 2, pp.56-78, 2004.
- [20] D. S. Kim, "Specialist are the future of journalism." *Kwanhun Journal*, Vol. 130, pp.19-25, 2014.
- [21] C. R. Kim, "Comparison of specialist journalist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K." *Kwanhun Journal*, Vol. 55, pp.111-140, 1993.
- [22] D. K. Kim & K. H. Kim, "Qualitative study on the reporting system of Korean newspapers." Vol. 5, No. 2, pp.33-68, 2005.
- [23] T. C. Jung, "Needs of professionalism of Journalist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 5, No. 2, pp.417-454, 2005.
- [24] R. L. Hall, "Profession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3, No. 1, pp.92-104.

- [25] M. Jung, et. al. "Journalist education of Korea and the world." Korea Press Foundation.
- [26] T. C. Jung, "Needs of professionalism of Journalist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 5, No. 2, pp.417-454, 2005.
- [27] Y. W. Kim, Education of Specialist Journalists: Concepts, Models, and the Status and Expectation of Foreign Countries. Korea Press Foundation.
- [28] C. R. Kim, "Comparison of specialist journalist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K." Kwanhun Journal, Vol. 55, pp.111-140, 1993.
- [29] D. W. Jung, "The first silver specialist journalist." Kwanhun Journal, Vol. 117, pp.70-77, 2010.
- [30] C. R. Kim, "Comparison of specialist journalist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K." Kwanhun Journal, Vol. 55, pp.111-140, 1993.
- [31] S. Kim, "Relationship between specialism and news quality in newsgathering activities: Concerning recruiting rout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8, No. 2, pp.56-78, 2004.
- [32] K. Lee "Analysis of threats factor in IT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 No. 1, pp.49-55, 2010.
- [33] H. Park, H. Nho & Y. Kim, "The impact of perceived IT threat on convergence information system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65-71, 2015.

전 형 준(Jeon, Hyoungjoon)



- 1998년 2월 : KAIST 화학과(M.S.)
- 2001년 8월 : 뉴욕주립대 커뮤니케이션(M.A.)
- 2004년 7월 : 미주리대학교 저널리즘스쿨(Ph.D.)
- 2008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조교수
- 관심분야 : 위험 커뮤니케이션 등

· E-Mail : samhjeon@gmail.com